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 13-17]

http://www.sjkoreancatholic.org/ 2011.1.9

## 금주의 강론

[배광하 신부님 강론에서] “세례를 사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죄가 없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보았듯이 세례는 신앙 입문을 위한 절차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례의 신앙을 이 지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부담스러워 하며 자신에게는 과분한 것이라고 굳이 사양하러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역시 겸손 그 자체가 신 분이셨습니다.

세례의 시작은 결국 나약한 인간성을 인정하며 겸손해지는 것, 하느님을 세상의 창조주, 주님으로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께 의탁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

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는 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 선포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임박한 하느님의 심판을 외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한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에 대한 하느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됨의 삶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이사 42, 3).

자비와 사랑을 사는 삶이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단식의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께서서는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로써 친교의 잔치를 베풀었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밥상에서 당신의 살과 피 전부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 밥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 누구도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는 것, 그것이 세례를 사는 것입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 12/28-1/25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에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배포된 악보를 위한 연습용 음악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 윤용선 신부님의 '사랑의 찬가'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87>

파트연습 파일은 박자가 좀 이상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악보와 실제 합창곡만 잘 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최덕신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907>

\*\* 가해 1월분 화답송 연습자료실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78>

참, 그리고, 테너의 최요한 형제님이 찍어주신 성가대 사진이 형제님의 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세요.

<http://j2ck.com/church/albums/2010-choir/>

최 다니엘 제공



13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

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분 명상

♡"고바오로 신부님 말씀중에서."♡



사람들은 병적 일 정도로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고 많은 심리 학자들은 말 하고 있다,  
 그중에 누구든지 각자 소망,욕구,욕망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고 사람들로 부터 자신이 인정 받고 싶어하고 존경 받고 싶어 하는 집착이 집요 하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자기자신에게 좋은 반응 즉 좋게 응답 해주기를 갈망 한다. caro 는 갈망,욕망,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공자님의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에서 남이 인정 해 주지 않고,알아 주지 않더라도 서운 해 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태도이며  
 섭섭 해 하지 않고,서운 해 하지 않는 것이 군자이다,

서운 해 하지 않는 것이 덕(德) 이요 이때 신비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하느님의 신비라하고 하느님의 신비는 드러 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공현되어 있다,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남을 위해서 묵묵히 하는 데에는 희생,수고,불편함이 따르는데 그 사랑이 공현의 신비로 드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화 시켜주고 거룩 하게 해 줍니다,

아름다움에 하느님의 신비가 들어 있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느끼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신비가 욕망과 집착을 없애주고 그 신비의 상태가 나의 존재자체로 인정되어 진다,

남에게서 좋게 인정 받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 났다는 것은 주님의 영 (성령) 을 모셔서 주님의 영(성령)이 임했다는 것 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 9)”

**금주의명언**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길이 보인다.”